

민주 당권주자들 광주·전남 현안해법 경쟁... '표심공략'



민주당 당권주자 가나다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공을 들이며 표심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들 중 당권을 거머쥐고 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19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구동성' 광주·전남 현안해법 경쟁... '표심공략'

최근 민주당 당대표 도전 선언 이후 광주를 첫 방문한 후보들이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법에 대해 해법을 내놓고 있다.

홍영표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와 특히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군공함이 12개가 있다. 기능상 유사한 곳은 통합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하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지역 현안 해법은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선정' 방식을 도입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특별법으로 확실하게 이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는 '상표'를 걸면 된다"고도 했다.

우원식 후보도 광주에서 "군공함 이전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협의체가 구성됐다"면서 "중앙정부가 이전

지역에 돌아갈 인센티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재정확보가 어렵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기부대응 방식은 기자체가 반대할 수 있는 없는 만큼 개선을 위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후보는 "군공함 이전은 필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승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소음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도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가덕신공항이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과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듯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들어 광주

전남 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 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지난 2016년에 처음 제안했고 첫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후보는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공동체 건설을 강조했다.

우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의 문제인 만큼 광주와 전남·북은 한전과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동체가 필요하다"면서 "바람이 많은 해안 등을 활용한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산

업 신기술을 활용하면 에너지 공동체로의 발돋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는 광주시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를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꼽았다.

송 후보는 "지역별 1곳의 공공의료원 건립할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 공공의료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TV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전라선 고속철과 흑산공항 건설 등에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선욱기자

野 비대위원장들, 합당에 제동...주호영 "무리하지 않겠다"

비공개 비대위 성토 쏟아져 "의견 수렴 안됐는데 독단적 당원들 추가 의견 수렴 진행"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당원 의견 수렴 문제를 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주 대행은 비공개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에게 "무리하지 않고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통합과 합당 문제는 시대적 요구, 당원의 명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될 사안이지 특정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합당 논의를 주도하는 주 대행을 사실상 공개 비판한 것으로 비공개 비대위에서도 주 대행을 향한 비대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개최된 시도당위원장 회의

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주 대행은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의원총회,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비대위원은 "시도당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의총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 의원들일 것이다. 밖에다가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적인 근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비대위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합당 등을 합종연횡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주말 사이에 여론도 악화됐고 안 대표 측도 뜻밖이지근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도 전혀 안 돼있는 상황에서 주 대행이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총에서는 합당이 아니라 통합에 대한 대의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의원들뿐 아니라 우리 구성원 중 야권이 폭넓게 통합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합당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주 대행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

었던 것이고 거기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대행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해서 진행할 일은 없을 것이다. 비대위에서 반대하는 일을 그렇게 추진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행의 발언에 비대위원들도 "(합당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주 대행은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의결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대강 합당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오늘이 무슨 의결로 어떻게 하는 것 아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합당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주 대행이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당 추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김무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등 신임 원내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병도(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부대표. (공동취재사진)

대권 적합도 윤석열 33.7% 이재명 27.1%...이낙연 11%

윤석열 1.6%p·이재명 2.5%p 동반 상승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

과, 윤석열 전 총장 33.7%, 이재명 지사 27.1%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이 지사(2.5%포인트)도 동반 상승하면서 격차가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11.0%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각각 3.7%, 정세균 전 국무총리 3.4%, 유승민 전 의원 2.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2% 등의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0%, 민주당 29.0%로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2.3%포인트 오르며 격차를 벌렸다. 민주당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